

주안예교회 News InChrist

주.안.예.교.회.뉴.스.레.터.



1
Jan. 2015
Vol.3 No.1

- 신년특별집회
- 청년부 리더임명
- 중고등부 찬양의 밤
- 칼럼 / 간증

주안예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ph. 818.363.5887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n-christcc.org



■ 신년특별집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으로 하나됨을 이루자

2014년 마지막 주일부터 시작된 주안예교회 스타일 부흥성회의 주제는 ‘헌신’이었다. 벨리 채플은 새벽을 깨우는 성회로, 세리토스 채플은 밤을 밝히는 성회로 열렸다.

지난 일 년에 대한 감사함과 다가오는 일 년의 결산에 대한 방향과 방안으로 주신 말씀은 헌신으로 세상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하자는 것이다.

어린 자녀부터 연로한 어른까지 온 식구, 온 교우가 주옥같은 말씀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한 축복의 현상이었다.

1월 3일 토요일 특별집회 마지막날에 성이삭 전도사의 “하나님을 위한 삶” 주제의 설교로 영유아부터 EM자녀들 그리고 부모님이 함께 첫 토요일 아침을 하나님께 드렸다.

성전을 가득채운 교육국의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단애 올라 목사님들의 축복기도를 받았다. 말씀과 기도가 어우러진 귀한 신년특별 예배였다.

다음은 최혁 목사가 인도한 신년 특별집회 말씀을 요약한 것이다.

Devotion To Keeping The Unity

하나됨을 지키는데 헌신하라 (엡 4:1~3)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됨을 요청하고 마귀의 속성은 나누고 쪼개고 분리한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총명한 은혜로 우리와 하나님을 묶어 놓는 유니티를 지켜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 유니티를 지키기 위해 요구하시는 속성은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인내), 용납, 평안이다.

1.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자신을 발견한 상태이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상을 잊지 말아야 한다.
2. 온유는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뜻(말씀)을 따라 힘을 조절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온유는 온도(말씀) 조절계와 같다.
3. 오래 참음은 사람이 기준이 되면 안되고

주님을 기준 삼으면 가능하다. 사랑하는 대상이면 아픔과 고통을 주는 대상을 용서할 수 있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4. 용납은 품어주는 것이다. 주님은 사랑가운데 용납하셔서 죄인을 의인되게 하셨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을 안고, 품고, 기다려 줄 수 있는 사람이 용납의 사람이다.

5. 평안의 속성은 영원성이다. 어떠한 환경과 시간도 초월할 수 있는 평안이 영원성이고, 영원한 것은 말씀이며, 말씀이 있는 것에만 평안이 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을 따라 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평안만이 영원한 것이다.

■ 주안에삶 O,T,

새해 첫 양육훈련, 1백여명 참가 ‘말씀 사모’

주안예교회 평신도 사역훈련원(이하 평사원)이 2월부터 실시하는 주안에삶 양육훈련 오리엔테이션이 인도자 30명, 훈련생 참가자 106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리토스는 1월 28일(수) 7:45PM 비전채플에서, 벨리는 1월 31일(토) 4:00PM 벨리채플 1호실에서 각각 실시되었다.

오리엔테이션은 이성우 전도사의 기도와 찬양인도로 시작되었으며, 세리토스에서는 이현욱 목사가 빌립보서 1:3-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시작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이현욱 목사는 ‘주안에삶을 훈련하며 성도가 서로 복음 안에서 교제(빌 1:5)하는 기쁨을 나누기 바란다’고 말하고 ‘말씀으로 잘 훈련 받아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드리는 성도가 되라’고 당부했다. 벨리에서는 한대일 전도사가 창세기 1장 3절을 본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한대일 전도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사원 부장인 이정미 집사의 주안에삶 예비교육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다. 이정미 집사는 주안에삶 훈련의 목적, 훈련의 목표, 훈련에 임하는 자세 등 훈련에 필요한 전반적인 설명을 했다.

다음으로 양국민 전도사는 인도자를 소개하고 인도자와 함께 훈련생들이 함께 만남

의 시간을 가지므로 모든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다.

2015년 첫 주안에삶 훈련이 실시되며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고 그 열기도 뜨거웠다. 그런 만큼 말씀을 사모하며 훈련을 통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한 성도들의 노력이 지속되기를 바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많은 성도들이 훈련에 참가하기를 기대한다.

| 김경일 기자 |

■ 중고등부 찬양의 밤

마음의 문 열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고백

지난 금요일 저녁 8시에 중고등부 찬양의 밤이 벨리채플에서 있었다.

지난 12월 겨울수련회를 통해 연합함의 기쁨을 맞본 아이들과 이런 마음을 헤아린 선생님과 교역자 그리고 이를 후원하는 어머니들의 헌신이 있었다. 앞으로 매달 마지막 금요일 벨리와 세리토스가 한자리에 모여 찬양의 밤을 진행한다. 연합하고자 하는 마음이 선생님과 교역자들이 발빠르게 움직였고 어머니들 역시 이를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었다.

찬양이 시작되고 아이들은 지난달 수련회가 지금껏 쪽 계속되었던 것처럼 마음을 활짝 열고 이미 예배실에 채워져 있던 성령을 마음 가득 담았다. 오히려 수련회때보다 더 뜨겁게...

세상에선 아직 옛된 아이들이 선전적인 옷을 입고 낯뜨거운 몸놀림으로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교회 한쪽 자그마한 예배실에서 하나님을 소리높여 찬양하며 그들의 인생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다. 아이들은 아무 것도 바라지 않았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며 나를 주안에서 찾지 못했고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기 바랄뿐이었다.

말씀을 전한 샘김 전도사는 때로는 웃음으로 혹은 진중함으로 아이들을 집중시켰다. 겨울수련회에서 다룬 돌아온 탕자를 되집으면 하나님은 한번도 서두르신 적이 없지만 깨진 마음과 몸으로 탄식하며 회개하러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는 버섯발로 달려나오던 모습을 말하며 우리는 종종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만 짐을 이고 지



고 다닌다고 했다. 두꺼운 사슬을 직접 몸에 쟁쟁 감아가며 뜨겁게 말씀을 전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 놓아야 참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아이들의 부모 즉, 우리는 자녀들을 실망시키고 때론 두렵게 하거나 상처 입힐지라도 하나님은 이 아이들의 진짜 아버지가 되심을 전했다.

이어지는 찬양과 함께 아이들의 눈물의 회개기도가 시작되었고 아이들을 짓누르던 것들이 쏟아져 나왔다. 우리 아들 딸들을 힘들게 했던게 내가 아니었으면 하면서도 옆에 대어섰은 부모로 인한 상처기에서 시작된 목적인 것들이다. 아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세상과의 일전을

치루고 있는 듯하다. 온 힘을 다해.. 온갖 방법과 모양으로 유혹하는 세상으로 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키고자 죽을 힘을 다해 싸우고 있다. 주안교회는 울타리가 아니었다면 일면식도 없었을 선생님과 학생은 서로를 품어 안고 눈물로 회개하고 중보기도로 응원했다.

부모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한 아이의 부모이기 이전에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의 본을 보였으면 한다. 내 아이가 탁월하기 바라듯이 우리도 탁월해지길 소망한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취해 사는 모습을 견어내고 순전한 그리스도로 회복되길 바란다.

| 채은영 기자 |

■ 학부모 · 교육국 리더 철야기도 모임

우리 자녀들을 통해 주의 일 이루소서

주안교회 교육국 주관 금요 철야기도회가 학부모, PSG 스태프, 리더들이 모인 가운데 1월 30일(금요일) 11:00PM 벨리채플 Kids Room에서 있었다. 철야기도회는 벨리와 세리토스채플 연합으로 진행되었으며, 교육부 디렉터인 이 케이시 목사의 인도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하루의 피로함을 뒤로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마가복음 11:25, 빌립보서 4:6, 요한복음 16:24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 케이시 목사는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자고” 말했다.

기도회는 디렉터의 결단과 스태프 한 명의 의견에 반응하여 시작하였으나 결과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불같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통성기도로 이어졌다. 먼저 PSG Group의 요청 기도회와 중보기도회가 끝난 후에는 개인기도로 이어졌으며 토요일 새벽에 마쳤다.



기도회에 참가한 Annie Yun 교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리고 이 철야기도를 열심히 빠지지 않고 함께 하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였다”며 기뻐했고, 벨리채플 고등부 부장 김명자 집사는 “하나님께서 교육부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이루실 일을 믿고 기도하며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간이었다. 말씀과 헌신으로 든든하고 견고하게 세워질 교육부를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이었다.” 세리토스채플의 김수연 집사는 “성령님께서서는 너무나도 기다리셨는지 바로 우리의 입을 뜨겁게 이끌어 주셨다. 허물들이 씻기고 막힌 것들이 무너졌고 우리 교육부에 맡겨진 영혼들을 향한 기도가 아버지께 속속 올려지는 느낌이었다.”고 기쁨으로 드렸던 기도임을 고백했다. 세리토스 EM 조원 부장은 “교육국 전체가 하나됨을 경험하였으며,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기대감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교육국 교사와 스태프, 부장들이 고백한 것처럼 부모와 교사들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사랑스런 자녀들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귀하고 복된 자녀로 세워주실 것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기도모임에 더욱 많은 부모님들과 교육부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참여하셔서 기도회로 사랑으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기대한다.

| 공태용 기자 |

■ 한어청년부 리더임명



하나님 한 분 영광 위해
순종의 자리로...

최우리 예비간사 (세리토채플)

주안예교회의 코람데오 청년부 안에서 목자로 섬기던 일년반정도를 뒤돌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으로의 성장을 일으켜 주시기위해 함께 걸어와 주셨던 길들은 정말로 감사했고 또 감사한 일들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처음 목자로 세워지고 한 영혼 영혼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 어찌할바를 모를 때, 그 사랑하는 마음조차도 기도하며 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셨고, 그들을 섬기며 내가 품어야 할 영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였을까 고민하게 하시며, 내가 바라보고 품어야 할 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올해도 목자로 섬기고 있는 중에, 저의 가장 약한 부분인 환경적인 면에서의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나의 방법으로 길을 찾는 제 옛모습을 다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예비간사라는 자리로 임명을 받으라는 얘기를 듣고, 내가 지금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더 섬기는 자리로 갈 수 있나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라는 생각과 예비간사라는 이름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내가 다른이에게 본이 안되어서 다른 누군가가 시험이 들면 어떻하나, 그만큼 영적으로도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하는데 또 내가 힘든상황을 바라보며 그저 머물러있으면 어떻하나라는 고민들로 거절하였지만, 힐링캠프를 다녀온 후 내가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 나를 묶어두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는것이 아닌 조금 더 기도를 많이 하게 하시는, 더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자리로 옮기려 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의 곁에 더 가까이 두시기 원하시고, 더 나를 불드시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으시구나라는 마음으로 임명을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지금도 어떻게 예비간사라는 이름으로 청년부 안에서 섬겨야하는지 잘은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더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받은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섬기고, 사람의 눈을 의식한, 누구를 만족하기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 한분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만 높이 올려드리시는 삶을 살기위해 더욱더 노력하는 자리에 서있는 하나님의 딸이 되어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인가를 바라하며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 한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비취 주시는
빛을 반사하게 하소서

이정은 간사 (벨리채플)

안녕하세요. 저는 주님의 부르심으로 코람데오 청년부 간사를 맡게 된 이정은 간사입니다. 처음 리더로 섬기게 되었던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로 들어오게 된지 얼마되지 않았을 때 전도사님께서 제게 리더제안을 하셨고 저는 그 제안이 너무 어렵고 부담스러워 힘들어 했었습니다. 처음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이곳에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받은 제안이라 주님께 “왜 지금의 저 아니까.. 저는 자신 없습니다. 아직 저를 잘 모르시는 전도사님의 마음을 돌이켜 주세요. 저는 정말 책임감없고 실수투성이 입니다, 저를 잘못 본 것입니다.”라고 기도드리며 하나님께 여러가지 핑계거릴 찾아 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혹시 주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주신 기도의 시간이 끝난 후 제 대답은 No였습니다. 그 후, 리더제안을 거절했던 죄송한 마음에 전도사님이 인도하시는 성경공부를 관계회복 하고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긴 시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인물들의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들과 주님께서 만들어가시는 리더십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고, 삶에서 본이 되어주신 전도사님의 섬김을 통해 마음으로 많은 것들을 얻게한 귀한 시간을 제게 주셨습니다.

이후 1년의 시간이 흐른 뒤 제게 리더의 기회를 한번 더 주셨고, 기도를 다시 시작하게 된 저의 마음에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말씀이 있었습니다. 실패할까 두려웠던 제게 주님은 내 힘으로가 아닌 온전히 아버지의 힘으로 청년들을 만나시는 것과 제게 실패를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었습니다.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저를 단련해 연단의 과정이 되게 하시는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처음 순종하지 않았던 저를 긴 시간동안 리더들의 사랑과 공동체를 통하여 팔로워의 태도를 배우게 하셨고, 그 경험으로 인해 리더의 자리에서도 팔로워의 자세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도도 주님의 시간과 때를 인내로 기다릴 줄 아는 기다림의 마음을 큰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간사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 기도했을 때 여전히 자신 없지만 Yes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늘 자리에서 오는 부담과 두려움으로 맞서고 있지만 저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는 전도사님들, 그리고 언제나 사랑과 위로와 헌신으로 함께 섬겨주시는 간사님들, 리더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코람데오 공동체가 있어 용기 내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자리가 주님의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해내고 좋은 팔로워가 되고 싶다고 기도하였고, 공동체가 주님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에 힘쓰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이 이뤄가실 계획을 바라봅니다. 제 힘으로 되는 것 없이 오직 주님의 힘으로만 이곳에 설 수 있고 목사님 말씀처럼 제겐 빛이 없지만 주님께서 비취주시는 빛으로 반사하며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며 섬기고 싶습니다. 부족함 많은 제게 다시 기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 한어청년부 리더임명

하나님께 받은 사랑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윤슬 목사 (벨리채플)



군생활 고된 행군서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

정용재 목사 (세리토스채플)



작년 2014년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변화를 허락하셨던 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고, 저를 향한 사랑과 계획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려주신 해였습니다. 의심과 불안정한 상태에 있던 저에게 하나님의 확고한 사랑과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느끼게 해주셨고, 그 조건없는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셨습니다.

청년부 리더로 헌신하라며 기도의 시간을 주셨을 때는 정말 혼란스러운 상태였고 당연히 저는 할 수 없다는 확고한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또 제게는 부담감으로도 다가왔습니다. 매순간 넘어지고 흔들리는 제가 혹시 목원들에게 상처를 주진 않을까, 혹 해가 되진 않을까하는 부담감이 너무나도 컸지만 그 부담감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났고,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예전과는 달리 그 상황을 믿음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결정을 내릴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건없이 주셨던 그분의 사랑을 저도 나눠주기를 원하신다는 것과 저와 항상 함께 하시기에 제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부담감이 부담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될 것이라는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매순간 저를 통해 일하시고 계획을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2015년은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저에게 조건없이 주셨던 그 사랑을 나눌수 있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2년 8월, 미국 미시간주에서 유학 중이었던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온실 속 화초처럼 신앙생활을 했던 저에게 군생활은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훈련소의 가장 고된 훈련 중 하나는 40km 행군입니다. 반나절만 지나면 약속이나 한듯 모두가 앞 사람 발 뒤꿈치에 시선을 고정하고 거친 숨결을 터벅터벅 짓밟으며 각자만의 생각에 잠겨곤 했습니다. 저는 문득 지난 미국 생활을 돌이켜보며 저의 인생가운데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어 쓰러져있던 저를 업어 눕히시고 상처 하나 하나를 닦아주시고 싸매주신 주님. 정신을 차려 감사하고 떠나려했더니 '너는 내 아들이라' 붙들어주시며, 하나님을 비방하던 자에서 이제는 주의 전을 섬기는 자로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는 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와닿아 눈물이 앞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맡겨진 사역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 드리는 줄로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저를 씻기고 치료하시려고 데려다 놓으셨던 그 자리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성우 전도사님께서 코람데오 청년부 리더자릴 제안하셨을 때 행군 중에 들었던 이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어딘가 뛰어다녀서 부르신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통해 제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준비시키시는 것이 있음을 믿기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제가 필요하지 않으시지만, 이 세대의 청년들을 바라보시는 당신의 마음을 제게 알려주시려, 그리고 저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치시려, 그리고 이제 곧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준비시키시려 이 자리에 부르셨음을 믿고,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교회의 자랑인 코람데오 청년부 연합예배는 1월 25일 2시에 세리토스채플에서 40명이 모여 2015년 첫 연합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 양국민 전도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요 13:34-35) 주제로 은혜의 말씀을 전하였으며, 찬양팀의 팀장을 임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부흥하는 청년부의 첫 연합예배에 하나님의 권속인 형제와 자매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풍성한 성령의 은혜를 소망한다.



■ 중고등부 겨울수련회



100여명 서로 격려하고 기도, 우정도 쑥쑥

지난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중고등부 겨울수련회가 밸리채플에서 진행되었다. 일상을 뒤로 하고 산장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내 삶을 돌아보고 한해를 새롭게 계획하는 시간이 되었어야 하는데 여러 사정으로 인해 교회에서 큰 일을 치루었다. 교역자와 부모 모두 미안함과 이로 인한 긴장 때문에 더욱 기도의 자리로 끌려 들어갔다. 아나나 다를까 아이들도 학교 뒷뜰 야영을 온듯 살짝 들뜬 마음을 잡지 못하는 듯 했다. 바로 5분이면 집과 가족, 학교가 있고 길건너에는 쇼핑몰이 있으니 어찌 쉽게 일상에서 마음을 접을 수 있었을까 짐작할 수 있다.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도우시는 손길을 간절히 기도했다. 이러한 기도들이 모여서 었을까 하루가 지나고 둘째날 오후가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저녁예배부터 아이들의 마음이 활짝 열렸다. 저녁예배 후 기도시간에 아이들은 흐느끼며 하나님을 찾았고 소리 지르며 회개기도와 용서를 구했다. 지켜보고 있자니 이 어린 아이들이 무엇을 이렇게 간절히 구할까 싶었다.

다음날 Q&A시간에 그 궁금증이 풀렸다. 아이들의 질문은 어른들의 궁금증과 큰 차이가 없었고 심지어 더 깊이 들어갔다. 우울증에 시달리는 부모님께 무엇을 해드려야 하나, 깨져가는 가정을 구할 방법이 내게는 없을까, 무엇인가 중독된 삶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기타 등등 우리들이 그들에게 지운 짐까지 더해졌음을 깨닫자 아이들의 절규같았던 기도소리가 이해되었다.

두채플이 연합하여 진행되니 이리저리 서머서머, 끼리끼리 뭉치는 듯 했던 아이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기도해주었다. 아이들의 인생은 우리생각보다 벌써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더욱 더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가 있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버거운 짐을 옹기내어 나누기도 하면서 하나의 기도가 100명의 기도가 되었다. 인생을 직면하기 무섭다는 친구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안아주고 손뼉을 마주 치며 옹기주고 격려하며 혼자자 아니라고, 너의 무거운 짐이 우리의 기도제목이 되었다고 하는 아이들의 응원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내내 기자의

눈물을 멈출 수 없게 했다.

돌아보면 나의 청소년기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다. 우리 모두가 그러 했을 진대 지금 어린 또 나의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 아이들에게 그때 내가 그랬듯이 인생의 무게를 더하고 있음을 회개하며 함께 울었다.

아이들은 삼일째 날 세리토스 친구들을 빈속으로 보낼 수 없었던 엄마들의 반개처럼 빠른 손놀림으로 만들어진 잔치국수를 먹고 곧 다시 보자며 헤어져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끝난 줄 알았던 수련회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이야기 꽃을 피우며 이어졌고 집에 도착해서는 마음에 품게된 기도를 SNS를 통해 나누며 수련회를 이어갔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 “자녀”... 이제 나의 인생에 나침반이 되기도 하고 자화상이 되기도 한 아들 딸들... 이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는 것만으로도 성공하지 못한 “미(완성의) (인)생이 완성이 되리라 확신하며 2015년 한해는 “내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자!”를 목표로 삼아 볼까 한다.

| 채은영 기자 |

The Retreat was ...

I really enjoyed retreat. God was there.

I felt blessed.

I was touched and blessed by God.

I was blessed and the fire of God came upon me.

It was a blessing and it helped me give

up something for Him.

I was inspired to get along with my friends. I had fun.

I was blessed and going together with God is the best thing ever.

It was very amazing and emotional.

I didn't shower for 3 days.

It takes baby steps.

I was very blessed.

So Blessed x10000.

I was blessed taking baby steps to Jesus.

I finally took the u-turn to God.

I felt good.

THE HOLY SPIRIT WAS THERE.

I felt really really blessed by God.

■ 수련회 간증

■ Eikon

Blessed to come Home

I feel as though the 2014 ICY Winter Retreat has blessed me more than any of the other retreats I went to in the past. It didn't matter that it was held at church. It didn't matter that we didn't drive a couple hours to isolate ourselves in the mountains. The Lord blesses us as He pleases, looking at the location of our hearts rather than our bodies.

One thing that really helped me grow as a man of God was the theme, "Come Back Home." Throughout the entire retreat, the pastors continuously preached about coming back to the home that is God, which convicted me to reflect and see where I was located spiritually. I realized that I had not been thinking of God and only worrying about worldly things such as school and SATs. With this realization came the first step back to God and following the path that He laid out for me.

I felt very blessed by everyone who also went to the retreat. From the pastors and leaders who led by example to the mothers who stayed at church until midnight to feed us to the other kids who encouraged me and grew with me, God had placed each and every one there for a reason. He used them to bless me and countless others who came to know His grace and glory.

When I came back to my physical home after the retreat, I was very satisfied in seeing myself change for the

better in a more permanent way, something that I had not been able to accomplish after the past retreats I went to. I started reading the Bible everyday, asking the beloved Pastor Isaac many questions, and generally getting to know and love God more. My childish relationship with God matured little by little everyday as I strove to understand His word.

I've also had the honor of seeing others change along with me. Daily DT sharings, inspirational words, and true brotherhood helped to further nurture me in my relationship with God, which I am very grateful for. As others grow, so do I as I am encouraged by the unity and strength of bonds that can only occur with a mutual love for God and His works. I am therefore motivated to form bonds with others in the hopes of spreading the love of God, which I have been so graciously and unconditionally given.

I am very grateful that God has given me His strength and wisdom to take that first step back to God. Although I am still struggling with daily problems, I am actively seeking my reward in Heaven, and I am assured that it will still be there whenever I stray off God's path.



Daniel Yoon



Awesome God

As I start the New Year, I have an opportunity as any other member of our church, to hit the "reboot" button in wrapping up 2014 in hopes of fresh and better 2015. Most importantly, I have a moment to reflect on what last year was to see where I am at today to carefully plan out my reboot for rest of the year. I have a pretty reassuring feeling that I will fall short, as I have done as many years in the past. But I am fully confident that the Holy Spirit will have my back and that God will not let me go, as in the past and going forward.

To say things frankly, between myself and God, I did not feel proper in assisting the IC Kidz programs in the beginning of 2014 due to personal reasons. I was going to step down, clear my head and take a break for a bit. I prayed many hours, consulted the pastor and other members of the church in hopes to do what is proper for the program and the eyes of God. I had self-doubt in myself, but I had feeling of confidence in God and the Holy Spirit to see this through with me. So the answer was to stick with the program, help out and let things play out as he would allow.

I was pretty arrogant in my own thoughts when I decided to serve. I thought that I was doing God a favor and couldn't see that it was other way around. I felt I was doing a great service to help out the IC Kidz program. I would be serving the Church, helping out the program and the children, and work with my boys while I am offering this great service to my church. What an awesome guy I am, I thought. But the truth and the answer was, how awesome is our God.

God surrounded me with the team of teachers and pastors that truly cared for the kid's wellbeing mentally, physically and most of all spiritually. We worked with the kids and worked with each other. God worked through each one of us and through the kids to reach and touch us. As I assisted the program throughout the year, I felt and realized God working, using and healing me. I was not only serving the kids, but the kids were healing me. The kids, the program and the church were doing more for me than I could ever hope to do in return. I began to realize what it is and what it means to serve. It was never about me, but it is about the ones that I serve and our God, the awesome God.

During Christmas service, I was given chance to briefly share and thank the ones that I serve and love in reading my thank you letter to God. I hope to continue to serve and be healed.



Alex Hahm

■ 병상일지

“살 희망이 10%...” 그러나 주님이 내 옆에 있었습니다

김용수 장로

수술한지 두 달이 조금 지나서 1, 2구역이 함께 구역예배를 드리는 날 구역예배를 인도하신 구역장님이 장로님 제일 좋아하는 찬송을 하나 고르라 했고 나는 거침없이 4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란 찬송을 선포하고 함께 불렀다. 찬송하며 마음속으로는 계속 눈물이 났다. 지금껏 살아 온 나의 진정한 고백이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쓸데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수술과 회복이 잘 되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뿐이다.

2~30년 전에 나는 이미 심장이 나빠져 있었다. 그 때도 한국 세브란스병원에서 심전도 계이치를 하루 종일 차고 다닌 적이 있었고 필리핀 선교를 갔다가 대형버스 안에서 heart attack로 쓰러진 경험이 있었다. 미국에서도 4년 전에 heart attack이 온 전력이 있다.

그런데 잠을 자려고 하면 심한 기침과 피가 섞여 나오면서 한 달 가까이 맥이 평상시 1분에 100~120 뛰었다. 그래서 x-ray를 찍고 며느리의 권유로 심장내과를 갔다. 나의 설명은 들은 심장내과 전문의는 너무 놀라며 오늘 당장 입원해서 모든 기록을 가지고 자기에게 다시 오라고 했고 찾아간 곳이 UCLA Olive view 병원이었다.

의사가 써준 프리 스크립션을 내밀었더니 접수 받는 사람이 몹시 놀라며 휠체어를 가지고 와 그때부터 일상철리로 심전도, x-ray 등을 찍게 되고 시계를 봤더니 저녁 7시가 되었다. 내일 아침에는 나가겠지 했는데 사흘이 지나도 나가라는 소리는 안하고 계속 검사



를 한다. 동맥경화, 울트라 사운드, CT 촬영, MRI 등을 하면서 의사들 표정이 처음 들어올 때와 달리 점점 심각해져서 내 옆으로 다가왔다. 심장을 싸고 있는 동맥이 3개가 모두 막혀 수술하면

살 수 있고 안하면 몇 달 못산다고 했다. 산소와 영양이 관상동맥을 통해 공급 받지 못하므로 이미 심장 한쪽은 죽어있다고 했다. 수술하기 위해 Harver에 있는 UCLA 병원으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며칠을 보냈다.

UCLA 병원으로 오기 전 Olive View 병원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셨다. 환자가 두 명이 한 병실을 쓰는데 새벽 두 시쯤 일어나 기도하는 중에 누가 물을 틀어 놨는지 졸졸졸 소리가 들렸다. 나는 기도를 멈추고 가만히 그 물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사람들의 기도소리였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자갈이 많은 시냇가에 흐르는 물소리같이...

너무 신기하고 놀라왔다. 물론 기도가 끝나고 물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수돗물 소리는 더욱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지를 내게 알게 하셨다. 그 후 수술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며칠 뒤 수술 날자가 잡히자 수술 의사 세 명이 수술부위와 과정을 설명하고 싸인을

받으려고 온 것이다.

그 후 마취과 의사, 약을 담당하는 의사들이 들어 와서 질문을 하고 싸인을 요구했다.

수술받기 이틀 전 많은 성도들이 심방 오셔서 기도해주심과 개인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옆에 계심을 느꼈고 특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지라도 해를 두려워 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노래한 다윗의 시가 생각났다.

10월 6일 새벽 5시 목욕 후 아내와 자녀들과 집사님들의 위로를 받으며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의사가 살 희망이 10%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 순간 나의 살아온 삶이 주마등같이 스친다. 11시간 수술 후 입에 산소 호흡기를 꼽고 있는데 아내가 와서 나에게 연신 수고했다고 하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다.

의사는 아들에게 수술은 잘됐는데 산소 호흡기를 떼면 스스로 숨을 쉴 수 있어야 산다고 했다. 의사가 One Two One Two를 계속 하고 거기에 맞추어 가쁜 숨을 몰아 쉬면서 예수님이 너무나 크고 다정한 모습으로 내 옆에 계신 걸 느꼈다. 그리고 의사의 손을 빌어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나는 다시 살아났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뿐이다.

2개월이 지나고 운동과 등산을 하며 부족한 나에게 생명을 연장하시고 덤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동안 병문안과 기도로 지원해주신 목사님들과 교역자님들 주안에 가족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뒷마당 가꾸기

단감·대추나무 잘 자라고 열매도 풍성



캘리포니아에서는 13월이 과수 묘목을 심기에 적합한 계절입니다. 이번엔 한국분들 대부분이 먹기 좋아하고 잎과 열매와 단풍이 아름다운 단감나무와 대추나무를 소개합니다.

단감나무와 대추나무는 비교적 다른 과수들에 비해 병과 벌레가 잘 안생기고, 대부분의 땅에서 잘 자라며 San Diego부터 New York 까지 기후도 그리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관리도 심은 후 23년만 물과 거름을 잘 조절 해주면 5년이후부터 20~30년은 아주 수확량도 많습니다.

물과 거름도 자기 스스로 해결하고요 참 신통하죠?

1. 권장할 품종

단감: Fuyu Jiro, Fuyu Imoto

대추: Jujubi Li, Sugarcane

2. 심을 장소

하루 6시간 이상 햇볕 비치고 물이 잘 빠지는 땅.

3. 묘목심기

A. 구덩이 파기 - 묘목의 뿌리가 옆으로 뻗은 길이보다 넓게 (보통 2피트) 깊이는 뿌리의 깊이보다 15cm정도 더 깊게.

B. 표면에 있던 흙과 Amendment 거름흙을 2:1로 섞어 밑에 15cm 정도 깔아 놓습니다 (흙이 비옥한 땅은 안써어도 됨)

C. 묘목을 손으로 잡고 구덩이 팔때 나온 흙으로

구덩이를 살살

메꾸는데 가끔

묘목을 흔들어

뿌리사이로 흙이 잘 채워지게 합니다.

D. 묘목은 원래 흙이 묻혔던 곳까지 묻는데 주변 흙보다 약간 높게 심고 또 접목한 자리는 흙에 묻히지 않게 5cm 정도 높게 심어야 합니다. (흙을 너무 다지면 안됨)

E. 구덩이 주위를 흙으로 약간 높이고 물을 주어 물과 흙이 골고루 스며들게 합니다.

F. 잎이 나올 때까지 다시 물을 주지 않습니다.

니형철 장로 (엠타운 너서리 운영)

■ 사역자를 소개합니다/ 조경일 간사(전산 담당)

상상해 보지도 않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안예교회에서 웹과 전산을 맡고 있는 조경일 간사입니다. 먼저 지면을 통해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간사로 일을 하게 된 계기와 제가 맡고 있는 사역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간략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약 2년 3개월 전에 취업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거의 5년의 시간을 일자리가 열리길 기다렸었고 비자를 받기 위해 대사관에 인터뷰를 하러 갔던 것과 그리고 부푼 기대를 안고 미국에 입국하던 때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미 10년 이상을 정착하여 살아오고 계신 분들에게는 어렵잖은 기억일 수도 있겠지만, 아직 저에게는 이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해석이 불가능한 사건들이었기에 또렷이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취업 1년만에 직장에서의 오해로 인해 해고통보를 받고 오고 갈 곳이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다른 직장을 찾으며 주어진 1달을 보내 보았지만 결국은 이대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과 결정의 시간 앞에서 서게 되었을 때, 주안예교회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미국으로 오게 하신 순간부터 하나님은 주안예교회로 부르시기 위해 하나님만의 수순을 밟고



계셨던 것입니다. 연락을 받은 후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고 싶어 일주일의 새벽예배를 작성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때, 에스겔 40장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성전을 세우게 될 환상을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에게 주신 마음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주안예교회에 작고 미약하지만 교회를 세우는데 작은 역할이라도 감당할 수 있다면 한없는 은혜이겠구나’ 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단 한번도 교회에서 사역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지 않았기에,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1년이 넘어선 지금에 이

글을 쓰게 하신 그 분의 뜻을 돌이켜보며 늘 처음 마음을 잃지 않아야겠다는 다짐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지난해에 주안예교회 웹사이트를 오픈하고 현재는 교적 프로그램(디모데)을 만드는 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존 디모데 시스템이 갖고 있던 확장성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추가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각 사역국들이 더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 것이며, 웹 사이트에 있는 공동체 영역을 커뮤니티 사이트로 분리시켜서 성도님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시스템 또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더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주안예신문을 보시는 성도 여러분, 주안예교회 웹사이트를 얼마나 자주 들어가 보시는지요? 웹사이트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계시는 건 아닌지요? 지금의 웹사이트 뿐만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지게 될 커뮤니티 사이트에도 각 구역의 소식과 사역국의 소식들을 많이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계획하고 진행해 나갈 사역들을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기도로 도와 주십시오.

‘돈 엔리크’ 지역 1천여명에 복음의 씨앗을

사역지:

주안예교회가 파송한 김길현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Pinsvil Dolores 와Don Enrique 이 두 마을은 마닐라에서 동쪽으로 차로 1시간 30분정도 떨어진 Taytay Rizal 시에 속한 마을들이다. 이 두 마을은 순수 필리핀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산동네 판차촌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역지 상황:

김길현 선교사가 대표로 맡고 있는 G2FM은 학교가 없는 Pinsvil Dolores 마을에 2013년 8월 한국인 선교사가 개척한 필리핀 현지교회인 마닐라 중앙교회에 처음 학교를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는 마을이다. 이 Pinsvil Dolores 마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기철에 빗물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2개 마을로 구성되어 약 300여 가구 1,000여명이 살고 있는 산동네 판차촌이다.

또한 Don Enrique마을은 3개의 마을로 구성 되어 있으며 현재 교회와 학교가 없는 마을이다. 이 Don Enrique 지역에 G2FM에서 약2천평의 땅을 매입하여 교회와 고아원 그리고 학교와 미혼모 및 싱글맘 센터, MK 훈련센터를 2015년 2월부터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Don Enrique 지역 3개 마을을 합치면 약 400여 가구에 1,500여명이 살고 있으며 아직 교회가 없어서 기독교인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만약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접할 기회를 얻어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될 것이라 확신하는 지역이다.

기도 제목:

1. Pinsvil Dolores 마을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1:1 후원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2. Don Enrique 마을에 구입한 땅에 살고 있는 사

■ 선교지 소식/ 필리핀 김길현 목사

- 람들이 상처받지 않고 이주해 갈 수 있도록.
- 3. 2월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선교센터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 4. 함께 사역하는 MK출신 정선교 선교사가 파송교회를 만날 수 있도록.
- 5. 함께 사역하고 동역하는 선교사들이 건강한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사역해 갈 수 있도록.
- 6. 사역에 필요한 차가 구입 되도록.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찬송가 442장 ‘I come to the garden’

요한복음 20장에는 돌아가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마리아를 부르시는 장면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은 오스틴 마일즈(C. Austin Miles 1868-1946)라는 음악가가 이 요한복음 20장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큰 영감을 받은 후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마일즈’는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침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 ‘위대한 아침의 이야기’란 바로 요한복음 20장의 한 동산에서 일어난 다음과 같은 사건을 말합니다.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무렵입니다. 텅 빈 예수님의 무덤 밖에서 마리아가 하염없이 울고 있습니다. 이 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 왔습니다. 처음에 마리아는 그것이 동산지기의 음성인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마리아’라고 부르셨을 때 비로소 그 음성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흐르는 눈물에 가려져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지 못하고 있을 때, ‘마리아야’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한마디 음성이 절대절망으로 슬픔에 빠져 있던 마리아를 절대희망의 기쁨으로 건져지게 했던 것입니다. 절대절망에서 절대희망으로 극적 변화가 일어난 아침동산의 이야기를 ‘마일즈’는 다음과 같이 써 내려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메아리처럼 울림이 있는 멋진 곡을 붙이



게 됩니다.

이 곡의 영문 제목은 ‘Come to the garden alone’입니다. ‘나 홀로 동산에 왔다’라는 뜻입니다. 1절 원문 영어가사를 직역해 봅니다 “I come to the garden alone While the dew is still on the rose 저 장미꽃 위에 아침 이슬 아직 맺혀있는 이른 새벽, 나 홀로 동산에 이르렀습니다. And the voice I hear falling on my ear The Son of God discloses 그리고 내 귀에 이슬처럼 떨어지는 음성,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있지요... Refrain(후렴):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그리고 그 분은 나와 함께 걸으시면서, 나와함께 이야기도 하시면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분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None other has ever known 우리가 그 동산을 함께 거

닐며 나는 그 기쁨은 아무도 알 사람이 없을 거예요.”

가사를 음미 해 보면 작사가 오스틴 마일즈는 요한복음 20장을 읽고 얼마나 크게 감동을 느끼고 깊은 영감을 얻게 되었는지 짐작이 같것 같습니다.

그가 1912년 이 곡을 작사 작곡하여 세상에 처음 발표 했을 때, 시적으로나 음악적으로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룬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 곡은 ‘저 장미꽃 위에 이슬’ ‘밤 깊도록 동산 안에’ 등의 시각적 어휘나 ‘그 청아한 주의 음성’ ‘귀에 쟁쟁하다’라는 청각적 어휘들의 뛰어난 시적표현으로 춤추는 듯한 선율을 타고 그 당시 최상의 찬송가로 끌어올려 졌습니다. 현재의 우리들도 이 찬송가를 베스트 중의 하나로 손 꼽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오스틴 마일즈’는 미국 뉴저지주 레이크허스트 태생으로서 원래 약학을 전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 약사생활을 그만두고 음악을 다시 전공한 다음 복음송을 짓기 시작하면서 찬송작가, 음악출판사 편집인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수백편의 찬송가를 작사 작곡하고 여러 권의 성가집을 펴냈다고 합니다.

서세건 기자



주안에게

비즈니스 소개

coway
 • Bidet
 • Water Purifier
 • Air Purifier
 • Water Softener

황은숙 (Deborah)
 Pro HP
 COWAY USA INC.
 Cell : (949) 874-8825
 Fax : (714) 739-4354
 7800 Commonwealth Ave. #201
 Buena Park, CA 90621
 www.coway-usa.com

이 사 라
 Suk Lee
 US 9636650
 Franchise Consultant

NU SKIN.
 THE DIFFERENCE DEMONSTRATED™

PHARMANEX™
 A Natural Healthcare Company

3700 Wilshire Blvd, #265 L.A.CA
 Cell : 818.648.1224
 E-mail : sarah27814@gmail.com

HISCO 히스코 자동차 그룹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가격
 “주안에 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 필요하신 차를 저렴하게 드립니다.”

대표 권문상 (Joshua Kwon)
 Dealer Number : 99371

hiscoauto@gmail.com | Cell : 714-357-7070 | Phone : 310-530-7979

John Koo
 General contractor
 949 374 0311
 jkoo89@hotmail.com

All Goodman Construction Co.
 Sincere, Honest, Experience, Knowledge, Trend, Sense
 Addition, Remodeling, New const., Landscape Repair, Maintenance, Any type of construction
 Lic # 965466
 Bond, Insured, Warranty

■ 마더와이즈 간증

깨어지고 일그러진 내 모습 말씀 통해서 회복

“엄마가 ‘마더와이즈’를 공부하면서 나를 존중해 주기 시작했고 우리 관계가 나아졌어”라고 고백하는 딸아이의 입술을 통해 저 또한 그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삶 가운데 얻게 되는 여러가지의 역할 가운데 아내라는 역할을 포기하고, 13살 딸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싱글맘. 이것이 몇년째 저 자신과,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자리에 놓이게 된 딸아이의 삶의 환경이었습니다. 딸 아이가 자라면서, 아이와의 관계 안에서 미성숙한 저의 모습은 고스란히 드러났고, 아이의 마음에는 상처가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남들 앞에서 보여지는 엄마의 모습과, 눈에 보이는 결과에 집착하며 자신을 채근하고 강요만한 채 자신을 존중도 이해도 못하는 집에서의 다른 엄마의 모습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실재가 되지 못하고,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저의 믿음을 힐난하며 공격하곤 했습니다. 엄마가 믿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노라고 외치곤 했습니다.

엄마로서 저 자신은 이미 부족한 엄마라는 죄책감과 절망에 눌린 채, 영적전쟁 속에서 감정을 이겨내지 못하는 끝없는 패배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나름대로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라는 억울함에 딸 아이에 대한 미안함과 동시에 야속함도 저를 괴롭히곤 했습니다. 그 무렵 한 아이의 엄마로서, 양육자로서 길을 잃은 채 무릎꿇고 주님 앞에 선 저에게 성령님은 제 안에 있는 깨어지고 일그러진 모습을 빛으로 조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가렸지만, 내면 깊은 곳에는 세상에서 나의 실패 대신 잘 자라주는 아이를 통해 인정받고 싶었던 회복되지 않은 깨어지고 일그러진 자아상이 제 안에 있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고통 속에서 은혜를 구하는 저의 형편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은 때에 맞게 마더와이즈 클래스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마더와이즈 클래스를 통해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교제 속에서 회개와 성령님의 주권과 통치를 제 삶에 적용하며, 그 삶을 살아내는 훈련을 통해 저 자신에게도, 엄마로서도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는 주님께 순종하며 온 시간들이었습니다. 같이 참여했던 인도자이신 사모님과, 여러 집사님들과 배운 말씀을 엄마이자 양육자로서 함께 고민하며, 십자가의 원리인 육의 죽음을 경험하는 그 어려움을 나누는 가운데,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서로가 강건하게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지혜와 자유라는 두 권의 교재를 공부하는 동안, 주님은 주님이 바라보시는 제 자신이 누구인지 확인시켜 주시므로써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셨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녀인 딸 아이의 존재에 대한 주님의 귀한 뜻을 마음에 넣어 주셨으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통한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지혜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직도 성화의 과정에서 믿음의 인내를 훈련 중인 연약한 자이지만, 마더와이즈 클래스를 통해 가장 많이 은혜받은 자로서 이 글을 전합니다. 경험해보지 않고, 연습해보지 않은 채로 엄마라는 자리에서 주님의 양육을 구했던 저에게 저 자신과 아이를 향한 주님의 시선과 마음을 얻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즉, 엄마인 저 자신의 회복을 통해 딸 아이와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시작의 자리로 은혜부어주셨습니다. 파테르 전능자 여호와께서 딸 아이의 인생을 친히 이루어가심을 믿는 믿음의 영적 눈이 뜨였고, 그 믿음의 인내를 위해 하루하루를 주님께 더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마지막 교재인 ‘회복’을 통해 저와 딸 아이를 온전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실 신실한 주님을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김명자 집사



● 사업체 광고를 실어드립니다 ●

성도님들의 사업에 도움을 드리고 교우 상호간 서로 돕기를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사업체 광고란을 마련했습니다. 광고비는 6개월 단위 \$150이며 광고수익은 선교 구제한금으로 사용됩니다. 문의: (323) 810-9853, icccnews123@gmail.com

Flower Factory / Uptown Nursery



과일나무
실내 식물
정원 나무 • 정원 공사

Tel: 213.382.9777 • 213.389.1388
E-mail: oakfastfoto@hanmail.net
294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Sang B. Kwon 권상복
sangbkwon@gmail.com
CA Ins. Lic #0H59734



Certified
Insurance
Agent
공인 에이전트

Cell. 213.713.9191



■ 문학과 삶

그립다... 나의 손 놓지 않으시던 아빠의 그 따뜻함이

문득 어린시절 아버와의 추억이 맘 깊이 젖어든다. 남산 기슭의 국민학교에 다니던 꼬마는 방과 후 운동장에서 그네를 타며 아버를 기다렸다. 급기야 저 멀리 교문안에 들어서는 아버의 모습에 기절하듯 반기며 달려가던 일. 아버의 따뜻한 손을 잡고서 총무로에 있던 제일호텔로 함께 걸어가던 일. 당시엔 최고급 메뉴였던 함박스테이크를 썰어 입에 넣어주시던 그 눈길이 아버의 행복인줄 그때는 몰랐었다.

아버의 손! 67세, 아직도 너무 젊으신 나이에 폐암으로 소천하실 때까지 나의 줄기찬 방황에도 아버의 손은 한번도 나를 놓지 않으셨던 걸 난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뼈속 깊이 사무치게 느낀다.

그리웁다! 삶이 지치고 힘들 때면 따뜻한 그 손을 다시 한번 잡아볼 수만 있다면... “우리 딸! 아무 걱정하지마, 나는 언제나 네 편이야” 그 목소리가 들릴듯. 그 편안함



< 아버의 손 >
어느 꼬마

아버의 손을 잡으면
부드럽고 기분이 좋아요

아버의 손을 잡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아버의 손을 잡으면
길에서 땀땀 달리는 차도
무섭지 않아요

아버의 손을 잡으면
사랑이 느껴져요

그 안온함의 온기가 그리웁다. 무서워 앓을래요. 사랑을 느낄래요. 그래서 오늘도 나는 아바아버지를 부른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

바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바아버지 내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치 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시네. | 서미숙 기자 |

2015 February

2/1(주일) 구역모임/ 사역박람회
2/5(목) & 2/6(금) 정기 공동의회
2/8(주일) 교구대항 배드민턴 대회/ 윗놀이

주안에말씀 (18주) 기간: 2/2~6/5, 7:45pm
주안에빛 (18주) 기간: 2/1(주일)~5/31(주일)
주안에삶 (7주) 기간: 1/28(수)~3/14(토)

“주안에” 2015년 2월호 원고 모집

‘주안에’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우리교회 뉴스레터입니다. 교구, 구역,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이메일: iccc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에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공태용, 김경일, 김헬렌, 라형철, 박창신 서미숙, 서세건, 오철호, 이현주, 조성운, 조용대, 조이 메기, 채은영, 최민애, Annie Yun (기자)
안동윤, 브라이언 조, 정인섭, 김다슬 (사진) | 편집디자인: 김윤영



예배시간 및 교회 위치 안내

주일 예배

세리토스채플 / 오전 9:30, 11:30
밸리채플 / 오전 8:00, 9:45

영성 집회

목요영성집회 / 저녁 7:45 세리토스채플
금요영성집회 / 저녁 7:45 밸리채플

새벽 예배

밸리채플 / 새벽 5:30(월-금), 6:00(토)
세리토스채플 / 새벽 5:30 비전채플



밸리채플 Valley Chapel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세리토스채플 Cerritos Chapel 13808 Imperial Hwy, Santa Fe Springs, CA 90670
비전채플 Vision Chapel 12631 E. Imperial Hwy #F134, Santa Fe Springs, CA 90670